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마음 위로

광주시 광산구 '희망 릴레이' SNS·현수막·안부전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 전해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민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는 '희망 릴레이 사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친 지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SNS를 비롯한 현수막, 전화 등을 통해 각종 '희망 릴레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 관내 공연예술가 및 단체들이 참여해 특별 제작한 영상 콘텐츠들은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광산구가 추진한 'SNS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과 응원 및 공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현재 광산구 SNS에 업로드된 희망 릴레이 콘텐츠는 모두 7개다. 각 콘텐츠마다 2~5분 내외로 희망 메시지와 장려별 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6일 업로드된 주홍 샌드 애니메이션(sand animation)작가의 모래를 이용한 동영상에는 남녀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과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다가올 행복의 장면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에 걸린 코로나19 응원 메시지 '열음장 속에서도 개나리는 필니다.' <광산구 제공>

또 음악그룹 '프로그'는 자작곡 '다시 합시다'를 부르고 타악그룹 '얼쭈'는 대북을 연주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 광산구민은 페이스북에 "다양한 희망 메시지 영상이 지루했던 일상의 악센트가 되고 다시 힘을 내는 계기를 주다니 중독성이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영상에 올린 트롯가수 진이랑은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힘든 시기인 만큼 함께 극복해 가자"는 말을 전했다.

광산구는 또 광주송영역 앞 건물을 비롯한 구청사와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

및 광산구립도서관 및 버스승강장 등 104곳 외벽에 '오라차차 힘내요'로 시작하는 크고 작은 희망 현수막도 내걸었다. '송정역 새벽기차는 들어옵니다', '월곡시장의 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메시지를 담아 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광산구는 희망 메시지를 활용한 '응원 메시지 SNS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현수막 희망 메시지 사진에 자신만의 응원 문구를 더해 SNS로 전파하는 시민 60명을 선정해 상품권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또 3일까지 다양한 경제 현장을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으로 흥을 배달하고, 체험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광산행복유랑단' 참가 공연단체도 공개 모집한다. 광산행복유랑단은 코로나19로 공연활동이 중단된 예술인에게는 활동 무대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전통시장·산업단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체와 상권을 홍보해주는 광산구의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 시책이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트로트, 퓨전국악, 대중가요 공연단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단체에는 공연 활동비와 함께 음향시설 등 공연 장비를 지원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침따라 긴급보육은 계속 하기로

광주시는 "오는 5일까지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의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휴원기간에도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가 정상 근무하는 등 긴급보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관내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13.9%에 불과했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이날 현재 45.4%에 이른다.

시는 어린이집 내 방역과 개인위생 준수,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 등 코로나 예방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

도점검하는 등 긴급보육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8만여매(아동용 6만 3324매, 교사용 1만8252매)를 현물로 지원한다.

또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휴원 기간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또는 1577-2514를 통해 돌봄전문가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활동비 선지급

월 30시간 기준 1인 27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 결정은 지난 2월부터 부분·사업별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고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만100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이다. 3월분 선지급액은 56억7300여 만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한

활동비는 사업 재개시 월 활동시간을 확대해 정산한다. 또 선지급 비희망자도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각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노인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 및 지급안내 등 후속 절차를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선지급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사회적 일자리 발굴... 시급 1만원 955명 고용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을 돕고자 사회적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한 주민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주민은 광산구 생활임금 기준급 액인 시급 1만90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주 5일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 코로나19 예방 방역,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 점검 등 7개 분야 13개 사업에 참여한다.

모두 95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놓이고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광산구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해고된 주민,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문화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한다.

광산구는 신청 인원이 선발 규모를 초과하면 재산과 소득 명세를 따져 경제력이 낮은 순으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비 27억원은 광산구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확보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1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영락공원 등 20여개 사업소에서 일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우산빛여울채 조건 완화 입주자 모집

광주도시공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9일까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조건으로 우산빛여울채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한

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3월 개정 시

행됨에 따라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제한됐던 기존 조건을 1년 이상 공가를 5% 이상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대상주택은 광산구 우산동 우산빛여울채 12평형이며,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입주자격 조사등을 거

쳐 2~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임대주택팀(600-6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소득요건 기준 제한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